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http://www.mke.go.kr
'12년 5월 16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진규 과장(2110-5210), 최수연 사무관(4709)	

지식경제부, 「실물경제 동향 제2호」 발간

- 주요 경제지표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요인에 대한 주요 경쟁국가와의 비교까지 폭넓게 수록 -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5.16일(수) 실물경제 지표와 최근의 주요 정책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실물경제 동향 제2호"를 발간하였음

□ 특집기획 중 「지식경제부 4년, 성과와 과제」에서는 지난 4년간 지식경제부의 무역, IT 산업, R&D, 중소기업정책 등에서의 업무 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명

○ 특히 그간 IT 융합산업 등 IT 산업 부문에서 나타낸 비약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향후 농업, 국방 등 전 산업분야까지 IT 융합을 확산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

○ 그간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의 영세화 심화 및 경쟁력 하락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역설

□ 거시경제동향에서 특이한 점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과 해외 투자 유출액 추이를 비교한 것으로, 유출액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인하여 유출액이 유입액의 약 3.2배에 달하고 있음('11년, 신고액 기준)

□ 또한 이번 호는 국가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가격요인과 비가격요인으로 분류해 중국, 독일, 일본 등 제조업 근간의 경쟁국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현주소를 조명하였음

□ (가격요인) 노동생산성, 대미달러 환율, 단위노동비용 등은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유지·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09년의 노동생산성은 '07년 대비하여 2년 간 전산업에서는 2.3%, 제조업 분야에서는 8.65% 상승하는 등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보였음

○ 대미달러 환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08년 큰 폭의 상승 이후 1,100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 중국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짐

□ (비가격요인) 지속적인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국가 R&D 및 지식재산권과 같은 비가격요인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국가 R&D 투자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또한 일본, 미국, 중국 등 경쟁국가에 비해 증가율이 높음

○ PCT 국제출원 건수 및 전세계 PCT 출원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권 분야도 성장세에 있으나, 기술무역 수지 적자폭이 매년 확대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음

□ 홍석우 장관은 발간사를 통하여 "이러한 분석이 앞으로 우리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정표가 되어 산업현장에 계신 기업과 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음

붙임 1. 「실물경제동향 제2호」 주요 내용
붙임 2. 「실물경제동향 제2호」 세부구성
붙임 3. 특집기획, 「지식경제부 4년, 성과와 과제」

붙임 1 실물경제 동향 제2호 주요 내용

[제1편 특집기획]

□ 제1편 특집기획 중 「지식경제부 4년, 성과와 과제」에는 '08년 출범한 지식경제부의 무역, IT 산업, R&D, 중소기업정책 등에서의 업무추진실적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찰을 실었음

○ 특히 IT 융합산업 등 IT 산업 부문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이러한 성과의 요인으로 산업진흥 기능과 서비스 규제 기능의 분리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음

○ 또한 중소제조업의 영세화와 생산성 저하를 지적하고, 그간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역설하고 있음

< IT 산업부분의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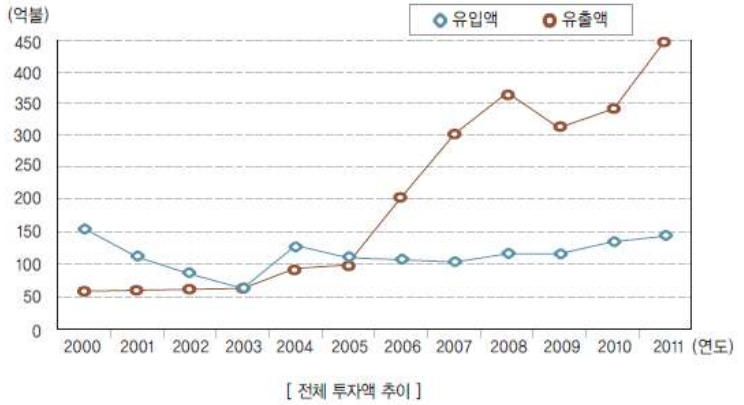
[제2편 실물경제동향]

□ 거시경제동향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과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유출을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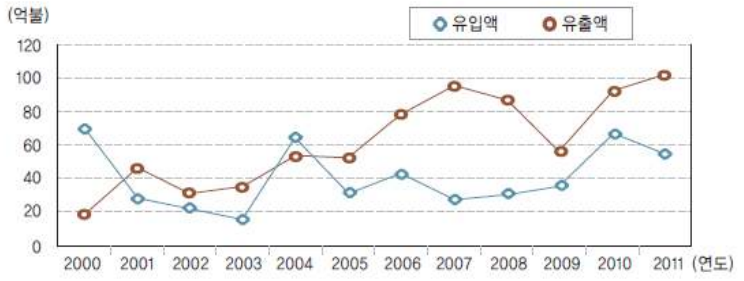
○ 2005년 이후 투자 유출이 유입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 이후 유출액과 유입액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커져, 2011년 현재 신고액 기준 유출액이 유입액의 약 3.2배에 달하고 있음

○ 제조업 분야 또한 '11년 현재 유출액이 유입액의 약 2배 수준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이 많아짐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고용 감소 등의 경제 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및 해외투자 유출액 추이(신고액 기준)>



[전체 투자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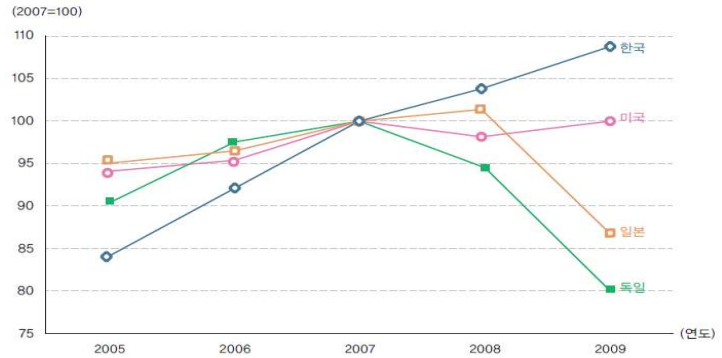


[제조업 분야 투자 추이]

□ 경쟁요인동향에서는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근간의 주요 경쟁국가와 비교분석을 시도하여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현주소를 조명하였음

○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분야 노동생산성은 2년간 8.65% 증가하여, 0.18% 증가한 미국 및 13.24% 감소한 일본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하였음

<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 추이 >



*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국제비교('11년)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2011
2007=100 지수는 2차 가공

○ 환율 또한 2007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 요인이 되는 등 우리나라 경쟁력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국가(통화단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Won)	대미달러	1,024.13	955.08	929.16	1,103.36	1,276.35	1,156.00	1,107.99
	지수 (2007=100)	110.22	102.79	100	118.75	137.37	124.41	119.25
일본 (Yen)	대미달러	110.25	116.34	117.77	103.34	93.63	87.73	79.74
	지수 (2007=100)	93.61	98.79	100	87.75	79.50	74.49	67.71
중국 (Yuan)	대미달러	8.1922	7.9748	7.6098	6.9483	6.8311	6.7687	6.4629
	지수 (2007=100)	107.65	104.80	100	91.31	89.77	88.95	84.93
유럽 (Euro)	대미달러	0.8039	0.7964	0.7299	0.6799	0.7167	0.7535	0.7183
	지수 (2007=100)	110.13	109.10	100	93.15	98.19	103.23	98.41
대만 (NT$)	대미달러	32.18	32.53	32.84	31.53	33.06	31.65	N.A.
	지수 (2007=100)	97.99	99.06	100	96.01	100.67	96.38	N.A.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환율 지수 및 유로의 대미달러는 2차 가공
* 기간별 평균 환율

○ 우리나라 국가 R&D 투자 규모는 경쟁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나, GDP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은 지난 5년 간 꾸준히 증가하여 '10년도에 3.74%로 OECD국가 중 4위를 차지하는 등의 성과를 거양

* OECD 국가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순위 및 비율(%) : 이스라엘(1위, 4.27), 핀란드(2위, 3.96), 스웨덴(3위, 3.61), OECD평균(2.4)

○ 또한 PCT 국제출원 또한 증가추세로, 전세계 PCT 출원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05년 3.43%에 불과하였으나 '11년 현재 5.75%로 확대되었음

<국가별 PCT 출원건수 및 비율 > (단위: 건,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건	4,686	5,945	7,064	7,899	8,035	9,669	9,292
	비중	3.43	3.97	4.42	4.84	5.17	5.88	5.75
일본	건	24,870	27,025	27,743	28,760	29,802	32,150	35,331
	비중	18.19	18.06	17.35	17.62	19.18	19.57	21.85
중국	건	2,503	3,942	5,455	6,120	7,900	12,296	14,318
	비중	1.83	2.63	3.41	3.75	5.08	7.48	8.86
독일	건	15,991	16,736	17,821	18,855	16,797	17,568	16,675
	비중	11.69	11.18	11.14	11.55	10.81	10.69	10.31
프랑스	건	5,742	6,256	6,560	7,072	7,237	7,245	6,474
	비중	4.20	4.18	4.10	4.33	4.66	4.41	4.00
미국	건	26,882	51,280	54,042	51,642	45,625	45,000	43,076
	비중	34.28	34.27	33.79	31.64	29.36	27.39	26.64

* 자료 : WIPO Statistics Database, February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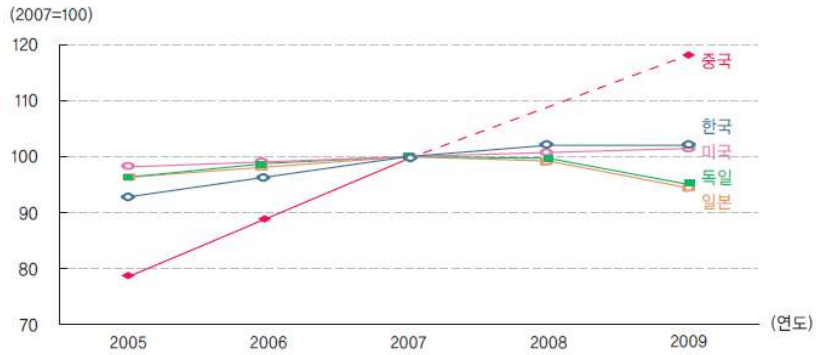
○ 이러한 경쟁요인의 긍정적인 발전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고, '10년에는 최초로 점유율 3%를 초과하여 수출 순위 세계 7위에 이르렀음

* 우리나라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 : ('01)2.4, 13위 → ('05)2.7, 11위 → ('10)3.1, 7위

□ 경쟁요인동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세임

○ 중국의 노동생산성은 2007년 기준, 2년 간 약 18% 상승하는 등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노동생산성 지수 추이 >



*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국제비교('11년),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2011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1
2007=100 지수는 2차 가공

○ 또한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금액은 '09년 현재 지난 4년 간 그 규모가 약 2.8배로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연도별 연구개발비 추이 > (단위: U.S. 백만$)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23,587	28,641	33,684	31,304	29,703	37,935
중국	29,898	37,664	48,771	66,430	84,933	N.A.
일본	151,270	148,526	150,791	168,125	169,047	N.A.
독일	69,317	73,737	84,148	97,457	92,552	92,490
영국	39,421	42,693	50,016	47,138	40,291	39,924
미국	325,936	350,923	377,594	403,668	401,576	N.A.

* 연도별 연구개발비는 PPP(구매력평가) 값을 U.S.$로 변환한 값임

○ 이 중에서 82.8%에 달하는 비율을 개발연구에 두어 산업기술 분야 기술의 고부가가치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요국의 R&D 비중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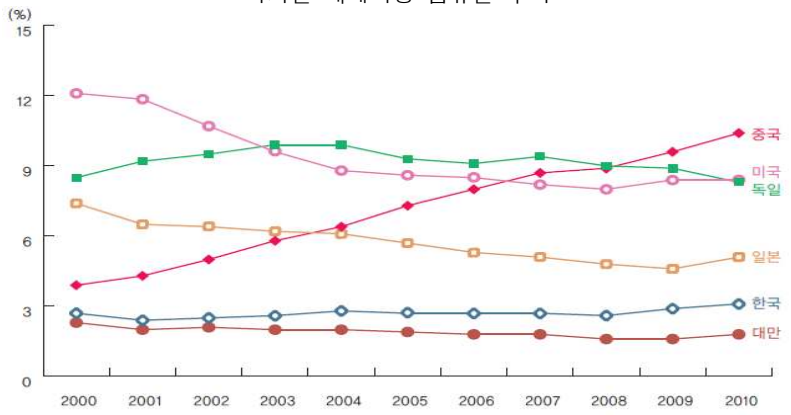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기초연구	18.2	17.4	11.4	25.4	4.8
응용연구	19.9	22.3	21.7	39.0	12.5
개발연구	61.9	60.3	62.6	35.6	82.8

* 201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주요 결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KISTEP
* '08년 현재 기준(단, 한국의 경우 '10년도 기준)
* 독일 :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2009
* 일본은 기타가 포함되어 있어 합계가 100%가 되지 않음

○ 뿐만 아니라 PCT 국제출원 건수 역시 6년간 약 5.7배 증가하였으며, 전세계 출원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05년 1.83%에서 '11년 8.86%로 증가하는 등 '09년과 '10년에 각각 프랑스와 우리나라를 추월하였음

○ 이러한 중국의 추격은 '00년 3.9%에 불과하던 중국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0년 10.4%에 달하는 등 국제 시장에서의 중국 상품 점유율의 지속적인 성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국가별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 >



[제3편 주요정책동향]

□ 작년 11월 이후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 주요한 정책들의 동향과 해외정책 동향에 대해 소개하였음

○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을 비롯해 지난 6개월 간 발표한 지식경제부의 주요 정책을 수록하였으며,

○ 지난 12월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국가수출구상(NEI)의 주요성과」를 비롯하여 EU, 중국의 주요 정책동향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음

붙임 2 실물경제 동향 제2호 세부구성

제1편. 특집기획

○ 지식경제부 4년, 성과와 과제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

○ 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무역 2조불 시대를 앞당기자 (안현호 무역협회 부회장)

○ 지식경제, 선진국 정신으로 무장하라 (강광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산정(産政)복합체를 넘어 지정(知政)복합체로 (이홍규 KAIST 경영과학과 교수)

제2편. 실물경제 동향

1. 거시경제동향

○ 최근 경기동향

○ 실물경제 동향

○ 대외거래

2. 경쟁요인동향

○ 가격요인

○ 비가격요인

○ 국제시장 점유율

3. 산업경제동향

○ 제조업경기실사지수

○ 기업규모별 동향

○ 제조업종별
○ 광업·에너지 분야
○ 산업인프라

4. 우정사업동향
○ 우편
○ 우표
○ 기타사업

5. 무역구제동향
○ 일반현황
○ 반덤핑
○ 세이프가드
○ 불공정무역행위

6. 국제산업협력동향
○ 주요 교역국 산업자원 협력 이슈
○ 신흥시장 중점협력국 협력 이슈

제3편. 주요정책동향
○ 지식경제부 주요 정책 동향
○ 해외정책 동향
○ 2012년 2/4분기 정책 추진일정